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협력을 위한 수도권 제도개선 과제

변창흠 교수(세종대학교)는 지난 2011년 12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수도권 관리정책의 평가와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제하였다. 이 연구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각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수도권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시행되어 온 수도권 정책을 중심으로 두 지역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내용과 한계를 평가하고 상생을 위한 수도권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요약·정리하였다.

-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과 입주가 어느 정도 진척되는 2012년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도권 기능과 고급인력의 유출을 이유로 수도권에 대한 기존의 규제의 틀을 전면적으로 해제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수도권 인구비중의 증가로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의 수도 더욱 늘어나 비수도권 지자체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를 대비하여 수도권 문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시기보다 절실해지게 되었다. 수도권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관념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현황과 문제인식, 수도권 관리를 위한 대안과

는 것이 현명하다.

팽창과 개발이 각종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거 불안
인식이 확대되면서 대안적인 개발방식에 대한 논의
살리기, 대안적인 재정비모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발 사업이 결코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
이러한 개발과 관리 모형이 정착되는 경우 수도권
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성장관리 모형을 수용하게 될
· 산생·발전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작성 : 고승희(기획조정연구실 기획조정팀장)
문의 : 041-840-1120 (kosh@cdi.re.kr)

- 수도권에서 지난 해 6.2 지방선거와 11.2 지방선거를 치른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지역의 정치·경제·문화·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정치·경제·문화·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정치·경제·문화·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정치·경제·문화·교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참조자료 : 2011.12.6 수도권 관리정책의